

# 디지털카메라 · 캠코더의 “원색 촬영” 新기술 -CBL Lens



사용의 편리성, 신속성, 간편성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진 디지털카메라가 필름카메라를 제치고 전세계적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디지털카메라는 편리하고 신속하게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지만 ‘왜곡된 색상’으로 인하여 필름카메라보다 못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 사용자 모두가 겪는 애로점이 바로 ‘컬러 밸런스(화이트밸런스)’이다. 본 고에서는 ‘컬러 & 화이트밸런스’를 요약하여 ‘밸런스로’ 표현하고자 한다.

문제는 사용자들이 디지털카메라 사용방법에 대하여 대다수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프로들과 유저들이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은 당연히 ‘후 보정’을 하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알고 있으며, 심지어 디지털 카메라는 ‘후 보정’을 위한 카메라인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그것이다. 그러나 좋은 사진은 ‘후 보정’을 하지 않고서 ‘원색’을 그대로 표현 할 수 있는 것이 ‘작품’으로서의 진정한 가치가 있고, 사진의 ‘예술’인 것이다.

고급기종의 디지털 카메라를 보유한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카메라의 복잡한 기능 메뉴에 번거로움을 겪고 있다. 보편적으로 오토, 태양, 구름, 노을, 형광등1,2, 백열등, K, 켈빈도, 프리셋 등의 기능이 있으나 대부분 커스텀에서 기본 세트메뉴인 ‘오토’ 등의 모드를 선택하여 촬영을 하고 있고, 핵심 기능인 ‘프리셋’은 사용방법조차 모르고 있는 유저들이 많다. 또한 커스텀 모드의 기본메뉴를 선택하여 촬영을 했을 때 색상이 왜곡되는 것을 디지털 카메라는 당연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으며, 따라서 후보정은 당연한 것으로 대부분이 인식하고 있다. 그중에서 원색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일부 사용자들만 ‘프리셋’ 기능에서 그레이 카드 등으로 밸런스를 세팅하여 촬영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정확한 것으로 알고 수 십 년간 사용해오던 그레이 카드 등을 이용하여 프리셋 모드에서 밸런스를 세팅하여 촬영을 할 경우에도, 카메라에 기본적으로 내장된 ‘커스텀 모드’ 보다는 색상이 다소 좋은 것을 알 수 있으나, 정확한 원색의 이미지를 얻기는 매우 어려워, 디지털 카메라의 한계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다.

○○○ 정리 | 편집부



사진 1. CBL Lens 집광면



사진 2. CBL Lens 굴절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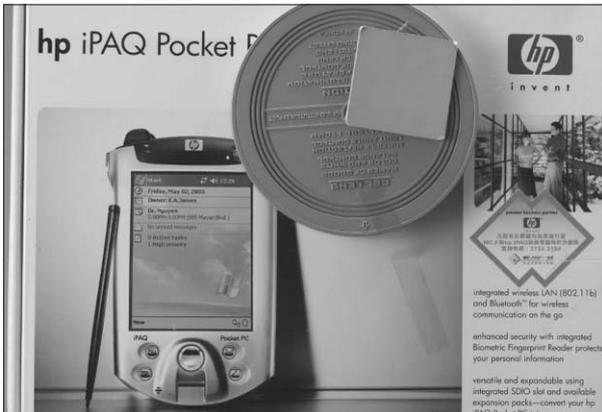


사진 3. 그레이 카드로 화이트밸런스를 세팅한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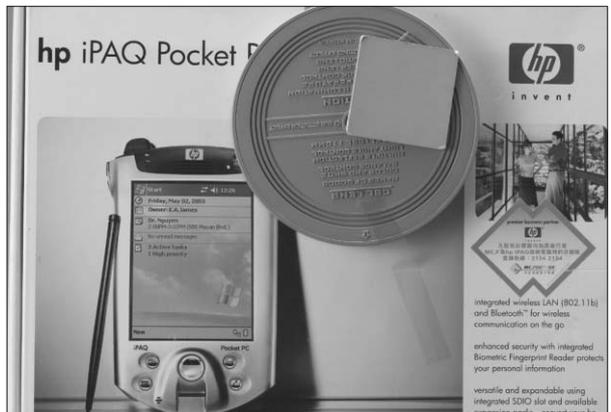


사진 4. CBL Lens 로 화이트밸런스를 세팅한 이미지

### 디지털 촬영의 생명은 “컬러 & 화이트 밸런스 (Color & White Balance)”

기존의 밸런스 세팅 방식은 흰색 종이나 그레이 카드로 카메라 렌즈에 꼭 차도록 대고 세팅을 했다. 또한 필터 방식은 렌즈 구경에 따라 렌즈에 나사식으로 돌려 채웠다가 밸런스를 세팅하고 다시 떼어낸 후 촬영을 했다. 위 두 가지 방식 모두가 오토 포커스 모드에서는 세팅이 안 되고, 수동 모드에서만 세팅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카메라 자체 플래시 사용의 경우는 물론 전문스튜디오에서의 스트로보 발광에서는 밸런스 세팅이 불가능하였고, 그레이 카드와 마찬가지로 색상 왜곡으로 프로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CBL Lens (컬러 & 화이트 밸런스 렌즈)는 간단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밸런스를 세팅하여 원색 촬영이 되도록 하는 신기술 렌즈이다. 사진은 순간적인 기회 포착이 매우 중요

하다. CBL Lens는 오토포커스모드에서 밸런스를 간편하게 세팅을 할 수 있을뿐 아니라, 낮은 조도에서도 세팅이 가능하여 자연스러운 사진을 얻을 수 있어 순발력이 요구되는 순간에도 원색촬영이 가능하다.

### 간편 · 신속 세팅으로 “원색” 촬영을 가능케 하는 “CBL Lens” 개발

서울 충무로에서 상업사진을 전문으로 <진 스튜디오>를 경영하는 고장진 대표는 자신은 2200만 화소의 디지털백, 핫셀, DSLR 카메라장비 등으로 삼성전자 제품을 전문적으로 촬영하는데, 그레이 카드를 사용하면서 색상으로 인한 고민을 많이 했으나 CBL Lens를 구입하여 밸런스를 잡으면서 색상에 대한 고민을 완전히 해결했다고 참으로 신기한



사진 5. 그레이 카드로 화이트밸런스세팅 후 촬영



사진 6. CBL Lens 로 화이트 밸런스 세팅 후 촬영



사진 7. 뚜연 막이 가려져 있어 색상이 답답한 느낌이다.



사진 8. 뚜연 막이 없는 색상이 선명한 느낌이다.

렌즈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자신들이 직접 테스트 한 위의 비교 이미지를 제공해 주었다.(사진 제공: 진 스튜디오)

사진 3을 보면 디지털 사진에서 나타나는 뚜연 막이 형성 되었으나, CBL Lens로 화이트밸런스를 세팅한 사진 4를 보면 뚜연 막이 없는 선명한 색상임이 확연하게 구분된다. 세계적인 디지털 카메라 메이커들이 신제품을 생산한 후 한국시장에 출시, 인정을 받으면 성공한 것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디지털 카메라 프로그 많은 것으로 외국에 알려져 있다. 따라서 CBL Lens 의 개발로 디지털 강국의 이미지가 더욱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디지털 촬영 전문가들의 CBL Lens 평가

사진업계에 20여 년간 종사하면서 한국에 최초로 콘택스 N 디지털 카메라를 보급했고, 현재는 이스라엘에 본사를 둔 리프(Leaf) 디지털백 한국 대리점과 <디지털월드>를 경영하는 이영희 대표와 덴마크에 본사를 둔 페이즈원 (PhaseOne)디지털백 한국 대리점 (주)고려엠티시스템 포토 사업부 김재성 부장은 “카메라에 기본으로 내장된 커스텀 기능으로는 원색 촬영이 불가능하며, 모든 디지털 카메라는 ‘프리셋’ 기능으로 화이트밸런스를 잡아서 촬영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프로들이나 유저들이 그레이 카드에 의존하여 화이

트벨렌스를 잡았으나, 색상 때문에 많은 애로를 겪었으나 CBL Lens로 벨렌스를 세팅하면 후보정이 필요없고 확실하게 원색촬영을 할 수가 있어서 색상에 대한 걱정은 끝이었다며 CBL Lens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왔다.

이영희 대표 외의 많은 전문가들 역시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가 사진기자재 부분이 취약하여 대부분 수입에 의존했으며, 디지털 카메라의 수요가 세계적으로 급속히 증가하면서 모든 사용자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빛의 (색온도) 컨트롤을 우리나라 기술이 완벽하게 해결했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라고 칭찬들을 아끼지 않았다.

주식회사 CBL은 현재 대형 영화촬영 장비와 방송장비 등에도 후대가 간편하며 손쉽게 컬러&화이트 벨렌스를 세팅하여 '원색촬영'을 할 수 있는 '컬러 컨트롤보드' 등 4종류의 새 아이템을 개발·생산하는 단계이며, 발명특허 획득과 동시에 출시할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CBL Lens의 출시로 인하여 복잡하고 획일적인 커스텀 기능의 메뉴를 골라서 촬영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지게 되었고, 디지털백 및 디지털카메라를 사용하는 모든 프로와 스튜디오, DSLR 유저들이 손쉬운 프리셋 기능으로 원색 촬영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디지털사진의 획기적인 진보라 할 수 있다.

CBL Lens를 통해 디지털 카메라의 기본 메뉴로 촬영 후 왜곡된 색상을 보정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게 되었고, 색상으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디지털 사진으로 필름사진 이상의 색감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 디지털 사진 촬영, “빛”을 읽는 과학이다

디지털사진이 필름사진을 못 따라 간다는 옛날의 고정관념을 바꾸면, 편리하고 경제적인 디지털 카메라로 필름사진을 능가하는 원색의 만족한 '사진 작품'을 얻을 수 있다.

선진국들의 고품질 인쇄기법에서 필름이 사라지는 이유는, 아무리 잘 찍은 필름이라도 현상 후 디지털 스캔을 받는 과정에서 데이터의 손실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필름은 소부(노광 露光) 등 제판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데이터의 질이 떨어지고, 망점(網點 negative)은 170정도로 고품질의 원색 사진이 표현되는 인쇄물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반면 디지털, CTP는 필름처럼 소부공정 없이 정확한 디지털 데

이터를 손실 없이 직접 반영시킴으로써 220-1,000 망점의 고품질의 사진과 인쇄가 가능한 것이다. 슬라이드 필름을 현상하여 루페로 보면 선명한 삼원색(RGB)이지만, 막상 사진으로 출력하면 색상이 다르게 표현되는 것은 아날로그를 디지털 스캔하는 과정에서 데이터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라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이로 인한 손실을 보정하려고 PC프로그램을 이용, 인위적으로 색상을 수정하지만, 하면 할수록 색상이 뭉개지는 등 원색의 표현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많은 전시회를 통해 사진들을 접할 때마다 어딘가 모르게 부자연스럽고 어색한 느낌을 받게 될 때가 많다. 자세히 보면 후보정한 것이 나타나는데, 그때마다 아쉽고 안타까운 맘이 든다.

우리나라도 일부업체는 고급 사진작품집, 고급카탈로그 등은 CTP로 프린트 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출력장비 업체들 모두가 일찍이 디지털장비 생산으로 눈을 돌렸다. 세계가 디지털 사진으로 변화하는 것은 더 이상 반론 할 여지가 없으며, 고품질 사진촬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학적인 근거인 것이다.

디지털 사진은 '컬러'와 '벨렌스'를 맞춰 촬영하면 필름사진 보다 월등한 원색의 '작품사진'이 되는 것은 빛을 컨트롤하는 과학기술 때문이다.

CBL Lens 개발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디지털카메라의 '프리셋' 모드에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컬러&화이트벨렌스'를 세팅하여 정확한 '원색촬영'의 '사진예술'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모든 디지털 사진가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궁금한 사항은 [www.cbllens.co.kr](http://www.cbllens.co.kr) / 화이트벨렌스 / 1588-4749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